

직무수행계획서

직급/ 직무분야	청소년수련원장/ 임기직 다급	성명	이영일	연락처	010-4706-5061
-------------	--------------------	----	-----	-----	---------------

※ 지원 직위(직무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운영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매 이내)

1. 청소년시설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미션과 비전은 최근 청소년 폭력과 자살의 사회문제화로 많은 관심과 시대적인 소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인재 양성과 역량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재정적 어려움과 학생 유치에 곤란함을 겪는 것이 지금의 청소년시설의 현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모습은 비슷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어 타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은 금새 떠오르는 브랜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수련관의 하나로 인식되어서는 경쟁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프로그램 제공과 수련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그 활동속에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메마른 문화적 감수성을 접목하여 궁극적으로 창의성과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내제한 인재 양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관장은 관리자이면서 리더십을 가진 셰일즈맨이다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관장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은 길어도 시설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공무원 조직의 장점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무원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적 세련되고 전문화된 경험은 적습니다.

저는 그동안 NGO, 청소년기관, 지자체에서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타 청소년시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청소년수련관, 나아가 광역화된 지명도 있는 활동이 조화롭게 엮여 돌아가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성장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역동성과 흐름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저는 그러한 비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꼭 있어야 하는 수련관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들은 모두 한결같이 재원 부족과 청소년지도사의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 지역사회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망 구성 미비로 만성적 재정난과 수탁시설의 교체로 인한 운영목적의 구현 실패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눈에 띠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법인도, 지역 청소년도, 지자체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초라한 운영실적들을 보여 왔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수련관보다 더 시설이 세련되고 훌륭한 레저센터들이 많이 생겨 경쟁력면에서도 어려움이 커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익 프로그램 가격 또한 시나 구의 조례에 묶여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수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마련하여 정원을 채워가지도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곳도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들이 특화된 시설로서 발돋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시설장이 회사원같은 마인드로 자리를 보존하는 직장 개념으로 접근한다던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외에 기획과 홍보, 경영 마인드 부족에, 그렇다고 구청 등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유연하게 풀어내지 못함으로서 재정 확보에도 실패하는 모습을 답습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고객 유치+홍보력 강화를 통한 인지도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제가 관장으로 일할 수 있다면, 저는 1차적으로 부평의 마을공동체 인적 인프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프라등 마을안에서의 청소년 환경부터 알아보고 부평구 관내 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해 수련관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저의 기관장으로서의 지휘 경험,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국장으로서의 노하우, 임기제 공무원 9년여간의 행정적 노련한 경험들이 발휘될 것입니다.

제가 맡을 부평구청청소년수련원관의 활동은 홍보(public relations)와 광고(advertising), 선전(propaganda)의 장점을 도출하고 이를 각각의 적합한 매체와 결합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편하고 친근하게 찾고, 멀리서 찾아와 언제 어디서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025. 1. 20 .

작 성 자 : 이영일

